“세계적 화학자로 고향에 노벨상 안겨주고 싶어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2021 으뜸인재 〈15〉 포항공과대 기민정 양

프랑스 엘리트 공학도 필수코스 에꼴 폴르테크닉 교환학생 참여
“물질 구조 밝히는 화학 매력적…새 패러다임 제시하는 연구자 꿈”

“지금 프랑스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저를 지역인재로 뽑아주신 전남도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꼭 간직하고 있어요. 열심히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장성고를 졸업하고 포항공과대 화학과에 진학한 기민정(21)양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프랑스로 건너간 것은 에꼴 폴리테크닉(Ecole polytechnique)에서 1년간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에꼴 폴리테크닉은 프랑스 국방부 산하 공업대학으로, 프랑스 엘리트 공학도의 필수코스로 알려져 있다.

“학교 시간표를 기준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한 과목당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데, 그 외는 특별한 일과가 없어요. 한국 학생회 활동 등도 줌으로 진행하죠. 프랑스는 대부분의 생활이 정상화됐고, 보건 패스라고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하면 대부분의 외부 활동이 가능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그야말로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장성 출신으로 전남에서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낸 민정양은 어렸을 때부터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남달랐다. 이 호기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고 과학자를 꿈꾸게 됐다. 2017년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삼성 드림클래스 수학멘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분석평가그룹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두각을 나타냈다.

“프로그램 중에서 ‘전남 글로벌 비전캠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룹의 팀장을 맡아 친환경 에너지에 주목했습니다. 태양광 야간 조명 등 시설 확충에 따른 야간 보행 안정성 효과, 관광지에 친환경 자동압축 쓰레기통 설치로 관광지 환경개선 효과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의 효과를 분석해 ‘전남형 에너지 도시 인프라 운영 방향’을 제시했었죠.”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정양이 화학을 전공으로 삼은 것은 수식과 현상을 맞춰나가 물질의 구조를 밝히는 것에 대한 매력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연구와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특히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해 화학반응의 원리를 규명하는 연구에 참여, 화학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또 가속기와 같은 첨단 연구 장비의 지역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

“현재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혁신의 주기는 짧아지고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어요. 흐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과 훈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민정양은 인문학에 관련한 교양수업과 강연 등을 찾아 듣거나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인문학적 소양도 갖춰나가고 있다.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열린 시선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전남도에서 지원해 준 재능계발비로 외국어 공부에 진력해 프랑스 단기유학도 가능했다.

“앞으로 화학과 물리, 수학 과목에 대한 연결 학습을 진행해 이론적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해 그 상금으로 전남에 장학재단을 설립, 미래과학자 육성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 언제나 헌신해주시는 아버지(기정호)와 어머니(김세란)께 감사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 김홍빈 대장 기념관 건립 추진
22일 광주시청 추진위 발족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고(故) 김홍빈(사진) 대장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추진된다.

18일 광주산악연맹 등에 따르면 22일 광주시청에서 산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홍빈 대장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열린다.

추진위는 산악인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교수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추진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임원진 선출, 기념관 추진 방향·일정,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장은 지난 7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 산맥 제3 고봉인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실족한 뒤 구조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브로드피크 등정으로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하는 업적을 남겨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이 추서됐다.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은 “산악인을 중심으로 김 대장의 업적과 도전정신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며 “추진위가 발족하면 기념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에 배우 박상원

서울시는 18일 문화본부 산하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에 배우 박상원(사진)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 등 방송과 연극을 넘나들며 왕성하게 연기 활동을 했고, 현재는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시는 “공연계에 종사하며 쌓은 지명도와 풍부한 전문성을 통해 재단의 대외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서울문화재단 대표 이사에 이창기 전(前) 마포문화재단 대표를 임명했다.

이 신임 대표는 강동아트센터 관장,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등을 지냈다.

재단 선임직 이사에는 서성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이은미 백석예술대학교 부교수, 이창희 일요신문 편집위원이 임명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적십자, 시민등과 재난긴급구호품세트 제작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가 최근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지사 구호창고에서 재난긴급구호품세트 제작 시민참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홈페이지를 통해 모인 시민 봉사활동가 10여명과 적십자 긴급재난대응봉사회 10여명이 참여해 재난긴급구호품세트를 460박스를 제작했다.

재난긴급구호품세트는 담요, 운동복, 일회용품세트(세면도구, 수건 등)로 구성됐다. 화재·사회재난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해 발생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전달될 예정이다.

봉철준 적십자 광주재난대응봉사회 회장은 “재난 대비를 위해 일반시민과 함께 재난긴급구호품세트를 제작하여 뿌듯하다. 재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재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50 좋은 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5 여순사건 73주기 추모식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재) 10 누리호발사기획 특선 다큐 8일간의 위대한 여정	00 연모(재)	1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3 45 쥬라기캅스3(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생생정보 스페셜(재) 55 다큐멘터리 3일(재)	00 12 MBC 뉴스 20 MLF KOREA 발롱블랑 챔피언십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안녕 우리말 2021(재) 55 더 나은 삶, 우리함께 당신을 응원합니다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네트워크특선 빅 부라더			00 뉴스브리핑
3	05 동행(재)	00 KBS 뉴스타임 10 키오카(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세계의 공영방송 가치+(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우정뽕즈의 인싸투어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웃집 찰스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국가대표 와이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연모	00 아무튼 출근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5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PD수첩	00 홍천기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0 100분토론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누리호 발사 기획 KBS걸작 다큐멘터리(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심포니 S.O.N.G 마스터즈 시리즈(재)	55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07:15 출동! 슈퍼윙스
07:30 숲속 배달부 빙빙
0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마법버스 타요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09:30 추피와 친구들
09:40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2:10 바닷가 사람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4:10 EBS 다큐프라임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5:25 클래스 e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6:00 마샤와 곰
16:15 개구쟁이 조이
16:30 딩동댕 유치원(재)
16:50 내 친구 몬덕이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재)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9:05 하트가 빛나는 순간
19:35 최고의 요리비결 공방
19:50 극한직업
20:40 세계테마기행
〈이것이 진짜 중동
-기차 타고 인샬라, 이집트. 모리타니아〉
21:30 한국기행
〈가을, 보물찾기 2부
가을, 사는 동안 꽃처럼〉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9일(음 9월 14일 庚子)

☎ 010-9790-8237

子

36년생 명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점진적으로 임하라. 48년생 일희일비가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다. 60년생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72년생 주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느니라. 84년생 유명무실한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96년생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3, 64

丑

37년생 마지막에 안타를 치는 이치이다. 49년생 차분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실행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61년생 그동안 비밀에 싸여 있었던 것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73년생 숙명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인다. 85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97년생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행운의 숫자 : 13, 78

寅

38년생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단연코 이루어 내는 쾌거가 있다. 50년생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느니라. 62년생 방심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74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86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음을 알라. 98년생 다 털어 놓아야 할 입장에 처한다. 행운의 숫자 : 73, 57

卯

39년생 직접 만나서 다루어야 타결 될 수 있는 일이다. 51년생 연결 고리가 참으로 부실한 태양이다. 63년생 오래 된 인간관계에서 파생된 인연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동일한 현상이 반복 되면서 상승 기류를 마련한다. 87년생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 99년생 액땜을 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9, 50

辰

40년생 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52년생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닭 쫓던 개의 양태가 될 수도 있다. 64년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76년생 힘들더라도 시종일관하여야 궁극에 이르는 법이다. 88년생 길조가 보이니 세심하게 보라. 00년생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5, 72

巳

41년생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천양지차이다. 53년생 재복이 저절로 찾아올 수도 있다. 65년생 힘들더라도 차츰 전망이 밝아질 것이니 앞날의 가능성을 보고 임하라. 77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라. 89년생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01년생 한 가지 일에 전력투구해야만 성공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9, 53

午

42년생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니라. 54년생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66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78년생 삼사일언 한다면 후환을 남기지 않으리라.90년생 부싯돌을 쳐야 불이 일어나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알라. 02년생 불균형이 보이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잡자. 행운의 숫자 : 45, 67

未

43년생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내는 이가 보인다. 55년생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리라. 67년생 지혜보다 직감이 더 맞는 날이다. 79년생 급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91년생 현상을 무시한다면 판도를 좌우할 만한 디딤돌을 잃게 될 것이다. 03년생 폭 넓은 시야가 발전적인 단계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35, 76

申

32년생 탐탁스럽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용이하다. 44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56년생 무심코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68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80년생 일단 정지한 후에 재시도하는 것이 낫겠다. 92년생 본 뜻대로 해도 아무렇지 않다. 행운의 숫자 : 43, 85

酉

33년생 소폭적인 진전이지만 의미는 있다. 45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57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가 있을 것이니라. 69년생 한 번 결정되면 번복하기 힘이 드니 장고한 후에 판단할 일이다. 81년생 한 번 정해진다면 계속 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 93년생 생산성의 측면에서 보자. 행운의 숫자 : 40, 87

戌

34년생 소리쳐 불러보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 46년생 얽혀 있던 실타래가 풀리겠다. 58년생 순간적으로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면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 하리라. 70년생 도모하는 것보다 그대로 있는 것이 백 번 낫다. 82년생 행운을 알리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94년생 대사를 도모하는 판국이 펼쳐지겠다. 행운의 숫자 : 32, 82

亥

35년생 완벽하게 대비 했을 때는 피해갈 수도 있다. 47년생 복잡한 성향을 내포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59년생 완급 조절을 잘 하지 못 한다면 액을 부른다. 71년생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다. 83년생 목전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95년생 방치 했다가는 갈수록 악화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61